

**PRESSBOOK**

MR.

*Harper's Bazaar*

*January 2017*



# Harper's Bazaar January, 2017 Kwon Min-Ji



해 보았을 때는 페로탕 갤러리 천장에 어떻게 도드라진 기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계획했던 것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아바 천장 부분은 조금 변할 것 같아요." 결국 하얀 갤러리 천장은 빨강과 초록으로 칠해졌다. "작업하면서 '이대로 좋은가' 하고 계속 자문 합니다. 그리고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엔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고 있더니 갑자기 벽에 붙은 종이를 찢기 시작했다. 입을 쭉 내민 채로 꽤 많은 양을, 사정없이 벽 밖!

익명성이 느껴지는 미스터리한 이름. Mr.는 일본의 야구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나가시마 시게오 선수의 닉네임 Mr. 자이언츠에서 따온 것이다. 괴상한 인터뷰를 즐기는 Mr. 자이언츠의 파짜적 면모와 Mr.의 기행에서 비슷한 인상을 받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름 테면 저의 코스프레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안 올 때면 코스프레를 합니다.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스커트를 입으면 굉장하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 같다고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코스프레를 할 생각입니다. 돌아다닐 수 없게 되면 집에서 혼자라도 괜찮아요." Mr.의 인스타그램 계정 @mysteryanen을 방문하면 세라북 차림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다든지, 스커트를 입고 얼굴을 파랑색 칠한 Mr.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 오프닝마다 코스프레를 하기로 유명한 그가 이번엔 어떤 복장을 준비하고 있을까? 불같이 잔뜩 묻은 손으로 후드 티 끝자락을 만지작거리던 Mr.가 수줍은 듯 아이폰 사진첩을 켜다. "가발도 안 쓰고 화장도 안 한 사진이라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붉은 리본이 달린 하얀 세라 북을 입은 Mr.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좋아하는 아니메의 주인공입니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이 사람은 진짜다! 그러니까 그의 스승인 무라카미 다카시가 '오타쿠 문화의 연구자'를 자처한다면 Mr.는 오타쿠 그 자체다. "오타쿠의 세계엔 끝이 없다고 할까요. 고수 위엔 언제나 더한 고수가 있는 법입니다. 때문에 마음에 드는 피겨를 볼 때마다 구입하고 있어요. 아니메 잡지와 동인지(팬들이 만든 2차 창작물)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겐 공부입니다. 하지만 내 작품이 오타쿠 문화를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개인적인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물론 Mr.의 판타지는 소녀들의 세계다. 그가 제작한 퍼넬 윌리엄스의 'It Girl' 뮤직비디오, 비키니 차림의 소녀들이 해변을 뛰노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해서 역시 "퍼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본적인, 나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코멘트를 남긴 바 있다.) 것처럼 Mr. 작품에선 감춰진 고양이, 조람 혹은 도쿄의 거리 등 지극히 일본적인 소재를 조연 삼아 각종 캔디 컬러 머리를 한 소녀들이 등장한다. 하나 같이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소녀들은 환상과 현실 사이 어디가로 모험을 떠나는 듯 보인다.

Mr.의 작품을 두고 아티스트 폴 매카시는 이런 평을 남겼다. "그의 작업에 나타난 몰리타 콤플렉스와 오타쿠 문화, 그 작고 순수한 세계는 참을 수 없이 매력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작업을 일삼는 폴 매카시가 Mr.의 작품에 끌린 건 아마 소녀들의 행복한 외모 이면에 마냥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있기 때문일 거다. 일단 오타쿠 문화의 태생 자체가 그렇다. 2005년 Mr.가 참여하고 무라카미 다카시가 큐레이팅한 그룹전 <어린 소년: 폭발하는 일본의 하위문화 예술>에 따르면 오타쿠 문화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무력감과 혼란의 반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 Mr.는 지나치게 자유롭고 밝은 소녀들의 이미지가 "심각한 상실과 무기력함 속의 삶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종교나 SF와 같은 종류의 내러티브"라고 말했다. 결국 Mr.의 소녀들은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일본에 잠재된 불안과 혼돈을 상징하는 동시에 상처를 치유해주는 모에(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 또는 열광하는 대상의 매력을 뜻하는 오타쿠 용어. 에로스보다 플라톤에 가까운 감정의 아이러니 쉐이다. 실제 그의 인스타그램엔 이런

지 난 12일 페로탕 갤러리, 일본 아티스트 Mr.의 개인전 <도쿄, 해질 무렵, 내가 가는 도시: 허전한 내 마음과 같은> 오프닝을 3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었다. 벽면을 감싼 종이는 갈기갈기 찢겨 있고 바닥엔 종이조각과 구겨진 비닐, 나무판자가 나뒹굴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부터 2011년의 쓰나미와 지진 등 수차례의 재난을 겪은 일본의 상황을 표현한 전시다운 풍경. 두 달여 전 도쿄 간의 구찌 매장에서 선보인 인스톨레이션과 비슷한 분위기지만 그때와는 달리 끝이 폐허 같은 공간엔 Mr.의 피겨와 페인팅 신작 여섯 점이 전시될 것이다. 방 안 여가지를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소녀들의 얼굴이 나뒹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니 문득 전쟁과 지구 멸망을 소재로 한 아니메(일본 애니메이션) <최종병기 그녀>가 떠올랐다.

Mr.는 그 설치 현장 한 가운데 쓰그러 앉아 있었다. 우동 사진에 (붓이 아니라 닢적인 붓 닢면에 색을 발라 도장처럼 사진에 찍어내는) 물감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색을 만들어 천장 구석구석을 가리켰다. "모형을 만들어서 시물레이션

## I am MR.

구겨진 종이와 물감이 흩뿌려진 폐허 속에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얼굴이 나뒹굴고 있다. 이토록 참혹하고 감춰진 세계를 만든 장본인 Mr.는 말한다. "나는 오타쿠이고 아티스트입니다. 당신은 모에를 알고 있나요?"

사진/황성민(2면), ©2016 Mr./Kaiwa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Perrotin(2면), 이타미 스페이스, ©2016 Mr./Kaiwa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Galerie Perrotin, Photos Keith Park(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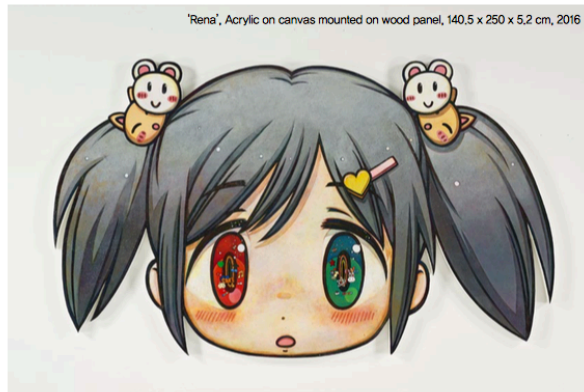


## Harper's Bazaar January, 2017

소개말이 적혀 있다. 'I am Mr, I am Artist, You Know MOE.'

Mr.의 예술 세계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슈퍼플랫(하위문화로 취급되었던 오타쿠 문화를 순수예술의 범주로 승격시킴으로써 예술의 위계를 평면적으로 재배치한 것)'과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가난한 예술)로 설명할 수 있다. 2015년 시애틀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 전 <Live On: Mr's Japanese Neo-pop>에서 선보인 'Give Me Your Wings: Think Different'는 망가진 컴퓨터와 의자, 박스 등 온갖 잡동사니들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이상한 성과도 같았다. 작품의 재료는 Mr.가 수집한 쓰레기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수거한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낱자를 적어두었다고 한다. 마치 인생을 기록하는 것처럼 말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 전시에는 쓰레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엔 사람들이 내다 버린 캔, 다다미, 망가진 잡동사니를 열심히 모아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요. 매주 일본 사람들은 정말 많은 망가를 버립니다. 그걸 주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쓰레기 대신 직접 아이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들과 라디오를 듣다가 생각난 문구들이 사방에 널려있다. 지하철의 풍경, 노을 낀 도로의 도로, 우동가게 입구의 사진이나 'Stay with me' 같은 말들이 혼잡한 상황 곳곳에 깨알같이 박혀있다.

"Stay with me'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걸 저도 지금 알았어요. 너무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본래 하이엔드보다는 서민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위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완벽하게 좋은 것보단 좀 나쁜 것, 진품보다는 모조품에 더욱 편안함을 느낍니다."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 가량의 시간 동안에도 역시 Mr.는 지금껏 일상적인 풍경을 찍었다. "이거 정말 많이 팔렸는데요?"라며 Mr.가 보여준 사진첩엔 핫드그와 뽀테기, 닭꼬치, 호두 땅콩 과자 같은 거리 음식이 가득했다. 작품 이야기를 할 때보다 한결 신난 표정으로 포장마차 사진을 보여주던 그가 대단한 것을 보았다며 영상을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포스팅한 짧은 영상은 세월호 인양 시위 때문에 팔관동에 위치한 갤러리 페르랑 앞마당까지 경찰이 들어왔던 장면이었다. "춥습니다 시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이었고 콘서트 같은 집회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야송'이라는, 하야와 구속에 관한 노래인데 과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들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처음엔 멜로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후크송이라며



'Rena', Acrylic on canvas mounted on wood panel, 140.5 x 250 x 5.2 cm, 2016

다시 한번 "하야하야하야" 후렴구를 흥얼거린다.

사실 Mr.를 만나기 전 나는 그가 작품 속에 만화 같은 이야기를 숨겨놓았으리라 예상했다. 어쩐지 소녀들마다 마음 속으로 이름을 붙여놓았을 것 같았고(“좋은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디다. 그리고 보니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 세 점은 이름을 타이틀로 합니다.”) 'As I close my eyes, I see the distant Arakwa River, the faraway sky(눈을 감을 때마다, 멀리 떨어진 아라카와 강과 하늘을 본다)' 같은 서정적인 작품 제목으로 미루어보아 감춰진 서브 텍스트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궁금증을 털어놓자 Mr.가 갑자기 이 면지에 쓱쓱 그림을 그렸다. 육각면 각각에 'Bird', 'Seoul', 'Hor'같은 단어가 적힌 연필 한 자루. "이 연필을 도르르 굴린 다음에 'Bird' 면이 나오면 '아! 새다! 하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봄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면 '아, 봄이구나' 하는 식으로 작업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작품 타이틀을 보고 서정시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 있지만 제목을 정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타이틀이 작업에 많은 설명을 더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내러티브가 상당히 없는 편이지요."

자신의 작품이 "일본의 창조성과 장인정신에 영감을 주는 것" 외에 어떤 바람도 없다는 순도1백 프로의 오타쿠이자 예술가인 Mr.는 지금 자신만의 우주에

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 중이다. 일관된 주제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항상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보다 새로운 방법에도 전하기 때문이다. 이제껏 페인팅,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영역을 탐나들었던 그는 1년여 전엔 작업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1인 방송을 하기도 했다. "많이 안 보던데요? 워낙 대단한 것들이 많아서... 요즘엔 VR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VR이 출시되었는데 와야,



전시 <도로, 해질 무렵, 내기는 도시> 하위문화 내 마음과 같은)의 설치 전경(화과 설치 전 아이디어 스케치(우)

